

보건사업 · 건강정보 한눈에

무주군, '건강 큐(QR)! 행복 온(ON)!' 책자 제작·배부

무주군은 24일부터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정보 등을 함께 담은 '건강 큐(QR)! 행복 온(ON)!' 책자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65세 미만 세대주를 중심으로 전 세대에 배부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동 열람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가족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유관 기관에도 비치해 군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에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보건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영유아·청소년·성인·노년기 등 각 시기별로 필요한 건강정보와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건강증진 사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아이·임신부 건강, △감염병 예방, △걷기·금연·절주 등 생활 습



건강 큐(QR)! 행복 온(ON)! 책자

관 개선, △어르신 건강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보건지소·진료소·병원·약국 현황 등 군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해 책 속에 정리

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콘텐츠와도 연계해 정보 활용도 접근성을 높인 점 등은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건강 큐 행복 온' 책자는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충족시켰다"라며 "큰 글씨체와 넓은 행간, 명확한 색상 대비를 적용해 고령층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고, 복잡한 데이터도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의 자연과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한 점도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 큐(QR)! 행복 온(ON)! 책자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320-8229)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성수면 행복주택 준공

진안군은 23일, 성수면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하고, 성수면민들과 함께 이를 축하했다.

이번 준공식은 성수면 이장단체 및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기념

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 리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성수면 행복주택은 약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공공임대형 다가구주택으로, 총 12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농촌유학 가족,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으로, 이번 사업은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선 군수는 기념사에서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성수면의 미래를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전북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진안군은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진안군은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에서 발굴된 기업 애로 해결 사례 중 심사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본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진안군은 '농공단지 오래된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ESG 기업환경 혁신' 사례를 발표해 도내 최고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설비 노후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 불편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재로 인한 공장 증설 제한 등 고질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끈질긴 행정력을 발휘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진안군,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심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반영해 우수 지자체를 가린 것으로, 진안군이 최우수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만성정신질환 악화, 자살위험, 자해 등을 예방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3개 영역, 7개 세부 항목에서 진행됐다.

진안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정신건강 접근성이 취약하고 41%(25.9.30.기준)를 차지하는 노인 계층에서 정신건강

지원 수요가 높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진안군보건소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 접근성 강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전년 대비 2025년 서비스 신청자가 4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소득층 신청 비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취약한 농촌 환경에도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교통장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점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문민수 보건소장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이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우수 지자체 선정

장수군이 군민의 마음 건강 증진 정책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포상금 3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수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홍보와 사례발굴을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군 조기 발견 체계 구축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문형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상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연계와 지원을 이어가며,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군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해 홍보와 사례발굴을 병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신청 안내 및 상담 연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정 대상자에게 바우처 이용 안내와 상담 연장, 재신청 관련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장수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리상담 수행기관 등과 협력해 위기 아동·청소년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 체계를 운영하며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상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연계와 지원을 이어가며,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9987노인복지·굿모닝 주간보호센터, 장학금 기탁

무주9987노인복지센터와 굿모닝주간보호센터가 23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9987노인복지센터 송기을 센터장과 굿모닝주간보호센터 김학기 센터장은 "을 한해도 무주군 어르신들의 건강과 군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어르신들과 나눈 사랑을 지역 아이들의 학력 증진과 꿈을 지원하는 데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에이알, 장수군에 20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에이알(대표 문성제)은 지난 19일 장수군을 방문해 (재)장수군에향교육성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과 함께 연말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장학사업과 복지 지원을 동시에 이루려는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가 인재 육성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함께 뒷받침하며 연말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제 대표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이번 나눔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인재육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신 에이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장수군의 미래를 밝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